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㉑상불경보살품 제20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듣고, 믿어, 기억하면 6근 청정

법화경 전한 공덕으로 만중생 성불

이 20장의 제명(題名)은 석존의 전생담에 등장하는 상불경(常不輕)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이 장은 첫머리에서 "〈법화경〉을 믿어 기억[受持]하는 사람에게 사나운 말, 즉 욕설[惡口]이나 잡된 말[雜言]을 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커다란 죄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법화경〉을 믿어 기억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功德]는 6근(六根)의 청정을 얻는다"고 설하고 난 뒤 이어서 〈법화경〉을 기억한 과거의 예로써 상불경보살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생담을 설하고 있다.

옛날 옛적 아득한 옛날에 위음왕(威音王) 여래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하늘의 신들과 인간·아수라에게 설법하고 성문·연각·보살을 위해 가르침을 설했다. 그 위음왕불이 수명을 다하여 입멸하고 바른 가르침[正法]도 바른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像法]도 사라져 버린 후에 또 같은 국토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그 부처님도 위음왕 여래라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2만억의 위음왕여래라는, 같은 이름의 부처님이 출현했으나 그 최초의 위음왕불이 입멸하고 난 뒤, 즉 바른 가르침이 사라지고 바른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의 '항상 경멸받은 사나이'라는 뜻의 상불경이라 이름하는 보살비구가 있었다. 당시는 잘난 체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다. 그 보살비구는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 등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보살도를 실천하여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부대중은 이에 대해 성을 내기도 하고 사나운 욕설이나 잡된 말을 하기도 하며 마침내는 몽둥이로 때리고 기왓장을 던져 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가혹한 행위에도 상불경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계속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은 지친 끝에 그를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그가 수명이 다하여 임종에 이르렀을 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옛날에 입멸하신 위음왕불께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소리였다. 그는 그 설법을 듣고 모두 기억해 냈다. 그러자 그는 그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聞法] 믿어 기억[受持]하는 공덕에 의해서 6근 청정의 은혜를 입어 그 수명이 2백만 억 나유타라는 긴 세월만큼 늘어났다. 그는 스스로 가르침을 듣고 믿어 기억한 〈법화경〉을 널리 사람들을 위해 설하였고 그를 박해한 4부중들도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그는 그 긴 수명을 마친 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서 차례차례로 각각 2천억의 일월등명불(日月燈明佛)과 운자재등왕불(雲自在燈王佛)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들 아래서도 〈법화경〉을 계속 설했다. 그 공덕에 의해서 상불경보살은 드디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이 전생담의 내용이다. 〈법화경〉은 이 전생담의 마무리로써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를 연결시켜 이렇게 설한다. 즉 '상불경'이란 누구인가 하면 현재의 나[석가모니]이며 당시 성내며 상불경을 박해한 네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호(賢護)라는 바드라필라(Bhadrapala), 즉 발타바라(跋陀婆羅) 등의 5백인의 보살과 싱하찬드라(Sinhacandra), 즉 사자월(師子月) 등의 5백인의 비구니, 그리고 위없는 행복을 얻은 사람[善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수가타체타나(Sugatacetana), 즉 사불(思佛) 등의 5백의 우바새(優婆塞)—범본 법화경에는 우바이(優婆夷)로 되어 있다—들이라 한다.

위의 전생담을 〈법화경〉이 설한 의도는 장행(長行)의 맨 끝부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이런 까닭에 모든 보살마하살은 내가 멸도한 후에도 항상 이 〈법화경〉을 굳게 믿어 기억하며 읽어주고 외워서 들려주며 해설하고 옮겨 써서 남에게 전하는 것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한 글이다. 〈법화경〉은 상불경보살이 〈법화경〉을 듣고 믿어 기억한 공덕을 설함으로써 이 〈법화경〉의 공덕이 큰 것임을 선양하고, 여래께서 입멸하신 후의 경전 수행을 사람들에게 권장한다. 이 '상불경보살품'이 '분별공덕품'의 후반(後半)에서 '수희공덕품'·'법사공덕품'과 더불어 공덕 유통으로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상불경보살은 자기와 만나는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향해 그들을 예배하고 칭찬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보살의 수행을 실천하여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계속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을 최대로 존엄시(尊嚴視)하는 사상과 실천이 교시(敎示)되어 〈법화경〉의 중심 사상의 하나인 일불승(一佛乘)의 사상을 생생하게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㊲

공부는 실천이다

모든 행위에 진지한 탐구자세 필요

도 닦는 이들이여! 출가한 이라면 모름지기 도를 배워야 한다. 나의 예를 들면, 과거 한 때에는 계율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경과 론을 탐구해 보기도 하였으나, 뒤에 이것들은 세상을 구제하는 약이며 드러내 보이는 말일 뿐임을 알고서, 일시에 이것들을 버리고 도(道)를 묻고 선(禪)을 찾았다. 그 뒤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분명해져서 천하의 노스님들을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 하루 아침에 문득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공부란 곧 실천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하는 것이 공부이지, 머리 속에 관념으로 기억하는 것이 공부는 아니다. 마음공부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고,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바로 이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관념적(觀念的)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지식은 관념적으로 의식(意識) 위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관념적으로 그린 그림이기에 지식은 허망할 뿐, 진실하지 못하다. 우리가 보통 겪는 삶은,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관념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진실하게 여겨, 집착하여 애지중지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 위에 그리는 관념의 그림은 마치 허공 속에 불꽃놀이를 하듯이 물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있는 순간에는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의식 위에 잔상(殘像)으로 남아 있는 기억일 뿐이다. 요컨대 진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의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음이다.

마음은 정해진 모양이 없는 재료이어서 어떤 의식의 모양도 만들지 않을 때의 순수한 형태로는 알려지지 않는다. 모양 없는 재료인 마음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의식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평소 우리는 의식이라는 나타나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되는 모양 없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진실로 실재하는 것은 재료인 마음일 뿐이고, 모양 있는 의식은 그 재료인 마음이 순간 순간 연출해내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마치 물결이 이는 물을 보면 물결만이 드러나 보이지만, 사실은 물결은 순간 순간 지나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고, 다만 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늘 다양하게 나타나는 물결만을 보고 물결에 관심을 가질 뿐인 것처럼, 늘 다양하게 나타나서 경험되는 의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의식은 허망하게 지나치는 순간들의 잔상일 뿐임을 모르고, 진실로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는 마음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마음공부는 헛된 것에 가리어서 진실한 것을 못보고 있는 상태를 극복하여 진실을 바로 보는 일이다. 다시 말해 모양[相]에 눈이 가리어 모양만을 쫓아다니는 삶을 극복하고, 모양 없는 진실이 진정한 본질임을 확인하여 모양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바로 마음공부이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곧 진실을 찾는 일이며 실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공부에는 오로지 실천이 있을 뿐이고, 어떤 허망한 관념적 이론에도 매달려서는 안 된다.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지금 자기의 모든 행위에서 진지하게 마음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위에서 참으로 진지하고 절실하게 변함없이 바탕이 되는 진실을 탐구한다면, 마음공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매주 수, 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 정 화) http //www mindfree.net/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㉕

영화를 통한 삶의 자각

문화매체 통한 포교 중요성 인식

삶의 진리 얻는 소재 다양화 필요

첨단과학의 발달로 한 편의 영화를 디지털화하여 지름 12cm인 DVD 광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도 안방극장을 차려놓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디지털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디지털 영상산업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영화제작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한다고 한다. 물론 산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불교계에서도 역시 이 분야를 주목할 때라 판단된다.

한동안 불교 소재 영화인 '달마야 놀자'가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불교계에서는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어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문화 매체를 통한 포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

이제 길은 두 갈래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불교 소재 영화를 제작 보급하는 것을 적극 후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기존에 제작된 영화 가운데 시대를 뛰어넘어 대중들에게 삶의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명화들을 엄선해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 좀더 부연하기로 하겠다.

우선 필자의 견해로는 불교 소재 명화의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대중들에게 석가세존이 겪었던 깨달기 이전의 삶의 과정(특히 생로병사의 목격)과 깨달음 및 그 이후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최근 감상한 〈The Cider House Rules〉라는 영화(원작은 J. Irving의 소설)가 이 기준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호머는 두 번 입양됐다가 두 번 고아원으로 되돌아온 아이다. 고아원장이며 산부인과 의사인 늙은 라치 박사는 그를 후계자로 삼고 지극히 보살피며 그에게 의술을 전수했다. 고아원에서 18년을 보낸 호머는 고아들의 생로병사를 목격하며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으나 미혼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해주는 라치 박사를 윤리적으로 못마땅해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절 수술을 받으려온 한 쌍의 연인들을 따라 시골 과수원 일꾼으로 취직해 고아원을 도망치듯 떠났으나 그곳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과수원 동료를 돕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미혼모의 중절 수술을 집도하며 라치 박사의 삶을 송두리째 체득하고 박사 사후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 박사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각계각층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명화들을 적지 않게 발굴하고, 널리 알려 중생들을 보다 쉽게 자각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두 시간짜리 가짜 영화가 아닌, 각자 사는 일생동안 내내, 주인공으로서의 멋진 한 편의 진짜 영화를 사차원 시공간(우주)을 스크린 삼아 상영할 수 있을 것이리라!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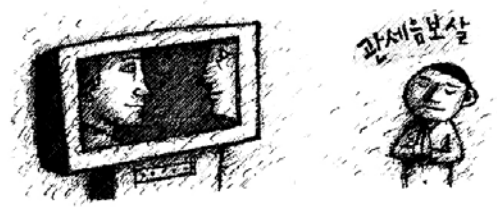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췌장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월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구매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동양의학에 약재로 쓰는 나무의 액기스로 만든
대나무수액시트
(우리대나무죽초시트)

발에 붙이면 건강해 집니다
마디식물대나무가
관절(마디)를 돕는다
발바닥은 인체반사구의
집합소 죽초가 목초보다
성분이 강하다
※ 불자님께 사은 선물
100매 구입시 ₩90,000
숯팔지 9미리 단주증정(판매가 ₩45,000)
수량한정품
(보석같이 단단한 비장탄으로 깎은 수가공품)
(병을 고치려면 먼저독을 빼라 : 책증정)
숯을 전문연구개발하는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송금 조흥은행 359-03-004847